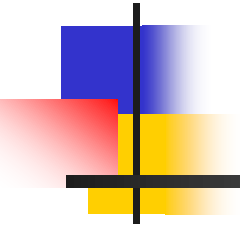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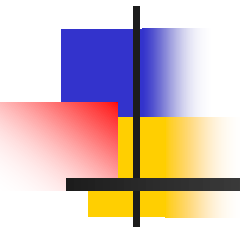
도구(Tools) 와 욕구(Needs) 의 다이나믹 첫 번째 이야기 기



박 동섭

littleegan@gmail.com

도구(Tools) 와 욕구(Need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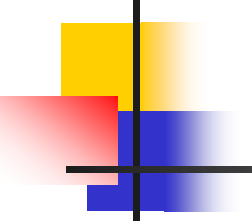
나는 왜 이렇게 날이 좋은 날 수업을 받는 대신에 보문 단지에 꽃구경을 하러 가고 싶은 것일까?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할 때 없으면 곤란한 것은 무엇?”

도구(Tools) 와 욕구(Needs)

- 방금 친구로부터 들은 내용을 잊지 않기 위해서 메모를 하려고 생각해 도 손에 필기구가 없으면 할 수 없다.
- 그럴 때를 생각해 보기로 하자.
- 메모를 하고 싶어도 필기구가 없으면 메모를 할 수 없어 곤란을 겪는다. 그럴 때에는 어쩔 수 없이 메모하고 싶은 내용을 메모 이외의 수단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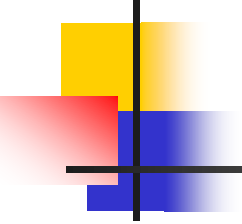
도구(Tools) 와 욕구(Needs)

- 
- 혹은 너무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싶다.
 - 그럴 때 에어컨이 고장 나 있으면 이것 또한 곤란하다.
 -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생각하였을 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이용 가능하지 않으면(unavailable) 우리는 곤란을 겪게 된다. 그 도구와 장치의 존재가 그 행위의 당연한 전제가 되고 있다면 더욱 그렇다. 하고 싶은 것을 그만두든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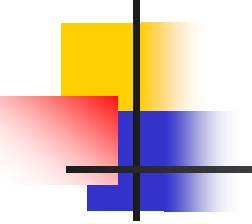
도구(Tools) 와 욕구(Needs)

- 잠시만.... 그 이야기는 당연한 것 아닌가?라고 누군가 반문 할지도 모른다.
-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때에 그 도구가 없으면 당연히 곤란하지 않은가? 라고.
- 그런데 이 당연한 사태는 말처럼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 이 당연한 사태를 잘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어지는’ 욕구의 문제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 왜냐하면 우리는 놀랍게도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싶어하는 욕구밖에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 날씨가 좋은 날 보문단지에 가고 싶어지는 욕구가 생기는 전제는?
- 자동차, 도로, 가솔린 값, 도로비용과 같은 인공물(도구)

도구(Tools) 와 욕구(Needs)

- 
- 이것은 우리의 욕구의 원류가 어디인가를 생각할 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 우리 인간은 도구와 장치와 지식과 기능 덕분에 하고 싶어 하는 것(도구 덕분에 욕구가 이는 것) 그것 밖에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해보기로 하자.

도구(Tools) 와 욕구(Needs)

- 
- 우리는 당치도 않는 것은 욕구로서 마음 속에서 일지 않는다.
 - 곧 바로 외워야 할 전화번호를 누군가로 부터 들었을 경우
 - ① 메모한다, ②휴대폰에 입력한다. 혹은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③머릿속에 전화번호의 숫자를 반복한다.
 - 선택지는 이것 이외에는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도구(Tools) 와 욕구(Needs)

- 이처럼 우리 일상에서는 하고 싶은 것은 한정되어 있다.
- 우리 행위의 욕구는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 ‘더우니까 에어컨을 켜자!’라는 욕구는 일어나지만 ‘체온이 떨어지는 약을 먹을까’라는 욕구는 일어나지 않는다.
- 그런데 이전에 일본 유학에서 만난 어느 파키스탄인 교수는 자기 나라에는 몸이 서늘해지는 파우다가 있다는 말을 들려줘서 나를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다.

도구(Tools) 와 욕구(Needs)

- 부산대학교에서 ‘지하철로 남포동에 갈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까지 순간 이동을 해서 갈까?’라고는 몽상은 해도 그런 욕구는 일지 않을 것이다.
- 메모와 실온조정과 이동을 위한 이러한 도구, 장치가 개발되기 이전 세계를 상상해 보자.
- 종이와 펜의 발명 이전 시간을 더 뒤로 거슬러 올라가서 문자와 기호의 개발 이전의 세계에서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필기구에 의한 메모의 욕구는 없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 같은 논리로 실온조정과 먼 거리로의 이동의 욕구도 지금과는 다른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도구(Tools) 와 욕구(Needs)



■ 이화우 흠날릴 제 울며 잡고 이별한 님 / 추
풍낙엽에 저도 나를 생각하는가. / 천리에 외로
운 꿈만 오락가락하더라.'

- 부안 기생 매창이 불렀던 연가이다.
- 님을 보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운명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와는 달리 이동하기 위해 버스나 자동차 혹은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을 취하기 위한 휴대폰도 없는 사회. 기술적 조건에 힘입어 ‘천리’라는 거리를 지금보다 훨씬 더 멀게 하였을 것이다.

도구(Tools) 와 욕구(Needs)

- 그런데 지금이라면 불안 기생 매창의 이런 절창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
- 즉 뭔가 행위를 수행하려고 할 때 이미 그 욕구 그 자체는 이용 가능한 도구와의 관계 안에서 성립 가능하다.
- 물론 ‘이런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몽상하는 국면은 존재한다. 때론 그것이 도구와 기술의 개발의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 그러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행위 하려고 욕구를 갖는 것은 이용 가능한 도구의 범위를 넘지 못한다.

도구(Tools) 와 욕구(Needs)

- 눈앞에서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무엇을 추구하고 싶어지고 생각하고 느낄까?
- 사진으로 남기려고 할까?
- 시를 한 수 지으려고 할까?
- 아니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친구에게 보내려고 할까?
- 그것은 내 손이 미치는 범위에 있는 이용 가능한 도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도구(Tools) 와 욕구(Needs)

- 카메라가 나오기 이전에는 눈앞에 펼쳐진 풍경을 사진으로 남기려고 하는 욕구는 마음속에서 일지 않았다.
- 그러나 그런 꿈과 같은 기계를 몽상한 사람이 있었음 에는 틀림없었을 것이다.
-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행위의 욕구와는 다르다.
- 카메라 이전에는 사진이라는 선택지 그 자체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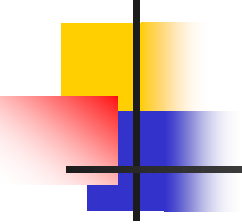
도구(Tools) 와 욕구(Needs)

- 그럼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
- 2009년 도쿄의 어느 대학 병원에서 뇌외과의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의사 'JIN'은 너무나도 우연히 타임 슬립으로 1862년 에도시대로 시간여행을 하게 된다.
- 머리에 부상을 입거나 머리에 뇌종양이 있는 사람이 병원으로 실려 왔을 때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 환자를 수술실에서 필요한 많은 도구(인공물)를 사용하여 수술하였던 JIN이 타임슬립으로 인해 경험하게 된 '리얼리티'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도구(Tools) 와 욕구(Needs)

- 그는 어느 날 저잣거리에서 말발굽에 머리를 차인 어느 여인을 수술하게 되었는데 평소 같았으면 식은 죽 먹기였을 수술임에도 마취제가 없는 바람에 아주 큰 곤란을 경험하게 된다.
- 결국은 마취제가 없는 상태로 머리에 난 상처를 꿰매는 수술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그 여인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호소하고 일시적으로 혼절하게 된다.
- 여인의 혼절을 눈앞에서 경험하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자각한 JIN.

도구(Tools) 와 욕구(Needs)

- 
- 그는 그 여인네의 아들이 울면서 불러주는 이른바 ‘말로 하는 마취제’ 덕분에 수술을 어렵사리 마치고 난 후 사랑하는 연인을 그리워하면서 다음과 같이 독백한다.
 - 미키
 - 믿을 수 없겠지만 난 지금 에도에 있어.
 - 수술을 하면 살인자로 몰리는 세상에서
 - 만족스러운 도구나 약도 없이
 - 수술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어 버렸어.
 - 아주 간단한 수술이라서 지금 세상이라면 실패할 리가 없는
 - 하지만 그런 수술이 여기에선 생사를 건 고투가 되고 말아.
 - 여태껏 수술을 성공시켜 왔던 건 내 실력이 아니었던 거야.
 - 지금까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약과 기술, 설비나 지식이었던 거야.
 - 그런 것들을 잃어버린 난 아픔이 적게 꺾매는 법 하나 모르는 돌팔이였던 거야.
 - 14년이나 의사를 하고도 난 그런 것도 몰랐었다.
 - 내가 이렇게나 보 잘 것 없다는 걸 몰랐었어.

도구(Tools) 와 욕구(Needs)

- (에도시대에 있는 주인공의 시점으로 봤을 때) 미래의 리얼리티(환자의 몸에 칼을 대서 치료하는 현실)를 경험한 JIN에게 있어 에도시대에서 수술이란 ‘생사를 건 고투’일지 모르겠지만 ‘수술’이라는 말조차 존재하지 않았던 에도시대.
-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머리에 부상을 입었을 경우 ‘머리에 칼을 대서 사람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욕구 자체가 일어날 리가 없다.
- 미래에서 온 JIN과는 달리 말발굽에 머리를 차여 머리가 찢어진 여인의 용태를 본 에도시대의 의사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도구(Tools) 와 욕구(Needs)

- 이 글의 서두에서 던진 물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기로 하자.
- “없으면 할 수 없는 것(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할 때 없으면 곤란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은 “없으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고 싶게끔 만드는 인공물”이다.
- 문자, 기호, 펜과 메모장과 같은 필기구, 카메라, 에어컨, 교통수단, 휴대폰, 메일, 공식, 약, 사전, 이러한 인간이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이용해 온 인공물(Artifact)은 그것이 없어도 다른 수단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을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것으로 바꾸어 왔다.
-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고 싶은 것’ 그 자체를 변경시켜왔다.

도구(Tools) 와 욕구(Needs)

- 추울 때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모닥불을 피우는 것, 옷을 껴입는 것, 독한 술을 마시는 것 등과 난방기구에 스위치를 넣는 것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지만 전혀 다르기도 하다.
- 난방기구가 있는 것을 통해서 방안의 온도는 스위치 하나로 자유자재로 변경 가능한 '대상'이 되었다.

도구(Tools) 와 욕구(Needs)

- 즉 우리의 행위는 “없으면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고 싶게끔 만든 인공물”에 의해 방향 지워져 있다
- 시험 삼아 이 문장을 읽고 있는 지금 잠시 동안만이라도 안경을 벗거나(안경을 끼는 사람이라면) 전기를 끄거나(한밤중이라면 혹은 실내가 아주 어두운 경우라면) 의자와 책상을 사용하는 것을 중단해 보면 이 문장을 읽으려고 생각한 욕구와 그 행위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다.